

일상적 사물들의 재문맥화를 통한 의미론적 전환

윤영석의 〈나는 베를린을 믿지 않는다〉

김 찬 동 · 전시기획자 | 본원 총괄협력팀장



1980

년대를 마감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은 미니멀리즘 이후의 다양한 미학적 질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화단을 주도하던 단색조 회화의 편향성이 퇴조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활발해졌다. 90년대 초반이 되면, 그동안 번역서나 단편적 이론에 근거한 미술이론의 습득과는 달리, 서구 모더니즘과 관련된 원전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모더니즘의 핵심문제와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게 된다. 소위 포스트모던으로 지칭되는 이론서들이 홍수처럼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모더니즘의 허실을 좀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모더니즘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던 작가들은 민중진영의 작가들과는 달리 모더니즘의 미학을 좀더 미학적 차원에서 극복하며 이를 대체할 이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윤영석은 80년대 중반부터 작가로 입문하여 매우 탄탄한 조형성을 인정받은 작가이며 90년대 초반 모더니즘의 문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작가다. 조각을 전공한 그의 작업은 종래의 미니멀 조각이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Primary Structure)가 유행하던 선배들의 작업과는 달리, 서술성과 메타포가 매우 강한 작업을 선보였다. 주형과 다양한 오브제를 연결시킨 일종의 설치작업을 통해, 시뮬레이션 드라마와도 같은 장면을 연출해 낸다. 나무와 브론즈, 합성수지를 이용해 만든 가면, 피아노, 몽골리안 얼굴 등 인류 역사와 문명적 메타포가 담긴 그의 작업은 서로 다른 문맥에 놓임직한 일상적 사물들이 하나의 작품 속에 놓여진다. 그는 형(形)과 상(象)의 상관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오브제들을 하나의 연출적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을 “전치형용(轉置形容)”이라 칭한 바 있다. 그의 어법은 복합적인 주제와 시대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입장을 작품의 주된 의미로 설정하고, 여기서 예기치 못한 구조와 물질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주제가 보이고자 했던 배면을 전달하고, 들춰져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

그의 초기 작품중 하나인 〈나는 베를린을 믿지 않는다〉의 경우엔 이러한 그의 작업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게르만 족의 군장을 떠올리게 하는 벽에 걸린 목재 구조물, 전투용 헬멧, 한반도의 남한을 형상화한 철판, 동물의 두개골 등등... 다양한 오브제들이 제단처럼 생긴 구조물 위에 놓여있거나 벽에 걸려있다. 제목만으로는 통독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은 듯한데, 한반도의 전쟁과 그 희생, 그리고 서로 통일되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을 통독 사건과 결부시켜 물리적 통합이 가지는 효용성에 대한 불신을 상징화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너머 서로 이질적 문맥에 놓여있던 사물들이 하나의 공간에 서로 만나게 함으로써 일상적 의미를 전도시켜 일상을 낯설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일상적 사물들을 예기치 않은 문맥 속에 작동케 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업을 통해 대상을 새로운 인식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그것이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론의 전환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러한 창조적 변형행위가 우리의 인식 능력을 날카롭게 만들곤 한다. 🌈